

눈을 뜬 무한

| 김흥호 |

충돌 없는 무한한 힘에 대해 말합니다(편집자 주).



고린도전서 13:8~13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아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무한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무한이라 할 수 있는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
도 폐하리라”는 구절이 그다음에 나오고, 또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
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10절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폐하리라.”

11절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
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 속으
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실지로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볼 때
에는 가장 확실하고 진실하고 충실하겠기에 그것을 나는 ‘실재’라고 이
름을 붙였습니다.

12절에는 내가 지금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제 그때가 되
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나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합
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
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한 장이니까 여러분도 따라 외우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처럼 꼭 따라 외워서 12절까지 따라 외고, 때때로 생각해 보고, 또 생
각해 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부분
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

게 된다고 하였는데 ‘온전’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온전, 실재, 무한, 세 마디로 압축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예언, 방언, 지식, 또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된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 가면 또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린애처럼 말하고, 어린애처럼 생각하고, 어린애처럼 깨닫지만, 그때가 되면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전부 안다는 이야기, 본다는 이야기, 깨닫는다는 이야기이지, 무슨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싸우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이 싸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장章’이 나왔으며, 남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문제’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한다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해 보면, 사람과 사람이 딱 마주쳐 충돌하는 것입니다. 지금 손과 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딱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충돌하지 않나. 왜 충돌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더니 눈이 멀어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만일 두 사람이 본다면 딱 충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리로 오면 난 저리로 가고, 저리로 오면 이리로 가고, 충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사람이 다 눈을 감아서 충돌하는 것이지, 눈을 뜨고 보면 충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말은 바꾸어 말하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우리

는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밤낮 싸우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눈을 뜨고 사랑해야지 눈을 감고는 사랑을 못합니다.

결국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눈 뜬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떴느냐, 눈을 감았느냐.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았다. 이젠 완전히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때에 가서는 직접 보는 것처럼 본다. 이런 말이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개안(開眼)이라는 말이 됩니다. 눈을 떴다. 남녀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눈을 뜨고 사랑을 해야지, 눈을 감고 사랑하면 밤낮 충돌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이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자기는 기껏 사랑하느라고 사랑했는데 결국 결과는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눈을 감고 사랑하고 맹목적인 사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말과 눈 떴다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전에 내가 태양이라는 말로 비유를 했는데 해가 뜨면 조그만 불들은 다 꺼야 된다. 지식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다 폐해야 된다. 온전한 해가 뜰 때에는 부족한 불들은 다 꺼도 괜찮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결국은 해나 마찬가지로이고, 해가 떴다는 말은 내용적으로 말하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은 무엇인가. 사람의 태양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무엇인가. 하늘의 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이 눈 보는 것이고, 태양이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뜬다고 하는 말이 그대로 사랑이라는 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온다든가, 본다든가 등의 말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할 때 기독교에서는 계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결국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요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 것도 결국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떴다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것을 비유하며 말씀하시길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맹이 위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는 다 눈을 뜬 것 같은데 눈을 뜬 것이 아니다. 가죽이 조금 찢어진 것일 뿐, 눈을 뜬 것이 아니다. 넌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그리고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봐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길거리를 가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장난감만 보이지, 다른 것을 보고 갈 때는 다 눈을 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난감 옆에 가면 마음의 눈이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보아도 결국 자기의 마음에 든 것만 보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통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의 눈을 떴을 때는 온전히 볼 수 있다. 그전에는 온전히 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도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눈을 뜨는 것이다. 온전히 눈을 뜨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는 것은 실재實在으로서 보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완전完全이라는 사상, 실재實在이라는 사상, 무한無限이라는 사상, 이 세 가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재’란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할 때는 ‘리얼하다’는 말이 더 확실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 할 때, 그 사람을 찍으면 그대로 사진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은 것하고,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렸을 때 사진은 진짜고, 그림은 가짜지요. 왜냐하면 되는 대로 그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두 눈 가운데 하나는 그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카소 같은 사람이 그렇지요. 하나만 그리든, 반쪽만 그리든,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지만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초상화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사진은 죽은 거고 그림은 살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왜 살았냐 하면 그 속에는 예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그대로 찍은 것이지 그 속에는 예술이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 속에는 예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설악산 같은 것도, 사진은 벽에 걸어 놓으면 싫증이 나지만 좋은 설악산 그림은 암만 봐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왜? 살았으니까요. 그 살았다는 것이 실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사람 가운데도 그런 산 사람과, 다 갖추었으되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갖추어도 사진처럼 죽기도 하고, 별로 갖추지 못하여 허술한 것 같아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보면 허술하게 차리고 밤낮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가 독약을 마시고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독약을 먹여 죽여서 땅 속에 파묻지만 사실은 나를 파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파묻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사실은 거기서도 살았다는 사람은 도리어 땅속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독약을 먹고 죽는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영원한 것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접한 사람이니까 그 영원한 손길에 가서 닿은 사람은 죽어도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아? 죽으면 죽어야 될 텐데, 죽어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딪친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를 않는다, 그것은 리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한하다’인데, 이 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라는 구절이 있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입니다. 무한의 한 알입니다. 그러나 이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백 배, 천 배가 되고 무한해지는 것입니다.

한 알, 한 알 그대로 있는 무한을 ‘악무한(惡無限)’이라고 하며, 죽어서 다시 살아나 천 배도 되고 만 배도 된다는 것을 소위 ‘진무한(眞無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헤겔의 말입니다.

요전에 십자가라는 것이 변증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밀알 한 알이 정교이고, 땅 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이 반反이며, 이것이 다시 살아나 천 배도 되고, 만 배도 되는 것, 이것이 합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반합입니다. 중세기에도 이 무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헤겔은 무한에는 악무한과 진무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무한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백 배, 천 배 되는 그런 무한을 진무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눈 뜬 사랑, 마음의 눈이 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산 사랑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랑, 그건 정신의 눈이 떴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어도 죽지 않는, 정신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랑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어도 죽지 않았지만,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사랑, 부활의 생명, 소크라테스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의 차이는 소크라테스는 죽어도 죽지 않지만,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을 떴다’, ‘영혼이 떴다’라고 할 때, ‘마음의 눈이 떴다: 오성적인 사랑’, ‘정신의 눈이 떴다: 이성적인 사랑’, ‘영혼의 눈이 떴다: 실존적인 사랑, 혹은 영적인 사랑’이라는 세 가지로 자꾸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가페의 성격을 대개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완전, 실재, 무한’이지요. 완전한 사랑은 자꾸 불완전한 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나. 가장 불완전한 존재, 아직도 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라든가, 병을 앓고 있다든가, 하여튼 불완전한 사람을 제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라고 마태복을 9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것을 보고는 견디지를 못하고, 그것을 완전히 하여야 견디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애도 부모가 사랑을 더해서 어린애를 성숙하게 만들고야 견디지,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하면 불완전할수록 더 사랑합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홀트 고아원에 가보면 정말 정신적인 불완전, 육체적인 불완전, 어떤 아이들은 몇 발자국 걷지도 못합니다. 또 나이 많아도 뗏을 헤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불완전한 사람, 제힘으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 먹지도 못하는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복에 갖다 놓으면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홀트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불완전한 것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한국에 와서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길렀습니다. 한번은 어떤 아이가 몹시 배탈이 났는데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놓아도 통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불완전한 어린애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홀트가 그 설사하는 어린애를 자기 배 위에 올려놓고 사흘을 지냈다고 합니다. 아기 배와 자기 배를 마주대고, 그래서 사흘만에 그 어린애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면 이거야말로 다른 데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불완전한 사람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병든 사람, 어린 사람, “어린 사람 하나를 완전하게 못하면 나는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것을 사랑하는 — 이것을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 아가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눌린 사람, 지친 사람, 짓밟힌 사람, 그 당시로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재는 언제나 허무를 사랑하고,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돌려주지도 못하는 사람, 이것을 아가페에서는 무상성(無償性)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충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에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세계에
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이라는 것이 자주 적어지겠지요.

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대개 조건부입니다. 당신을 사랑
하겠소. 얼마큼?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는 만큼.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조건부이지만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
다. 그저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왜? 난 실재니까, 충실이니까. 이 충
실이 허무에 대해서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아가
페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받을 생각은 절대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갖다 주기를 좋아하지
만 전혀 나한테 돌려주지 못할 사람에게 무엇을 갖다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사람만
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통에 물이
들어 있다고 하면, ‘불완전’은 통에 물이 절반쯤 든 것이고, ‘허무’한 것
이라면 빈 통을 채워주는 것이며, 무한은 밑 빠진 통을 채워주는 것입
니다.

무한은 언제나 유한을 사랑합니다.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쉽
게 말하면 아주 들어 막힌 것, 세상에는 들어 막힌 사람이 있는데 들어
막혀서 자기밖에 몰라서 남은 죽든 살든 문제 삼지 않고 자기만 알고,
남은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일 유한한 사람이라고 하
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나쁜 짓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
다. 남을 죽이는 것도 그런 사람이 죽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
의 이익 같은 것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떡 하나 얻어먹고 어떤 할
머니를 죽이기도 하는 등, 자기만 생각하지 남은 통 생각하지 않습니

다. 그런 막힌 사람, 못된 사람, 유한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원한을 가진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인류의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한테 좋게 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무슨 효과가 있느냐. 너희를 죽이려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이 말은 우리가 물통으로 말하면, 아까 절반 찼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밑이 빠진 파이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무한이라고 하는 사랑 때문에 계속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악한 사람,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사랑해 주어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죽이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끔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바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아마존 상류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갔습니다. 가서 최선을 다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도리어 그 선교사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사가 잡아먹혔다는 말을 들은 그의 부인은 그 나라 말을 배워서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 잡아먹어도 또 가고, 죽여도 또 가는 것입니다. 잡아먹어도 또 가고, 죽여도 또 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물론 지극합니다. 부모도 어린애를 사랑하고, 아들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들 가운데에서도 악한 아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들일수록 더 사랑하고, 없

는 아들일수록 더 사랑하고, 악한 아들일수록 더 사랑을 합니다.

언젠가 김동길 선생님이 설교할 때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업고서 산 속 깊이 버리러 갔는데, 이 어머니가 가다가 나뭇잎을 하나씩 자꾸 따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그건 왜 그렇게 따는 거요?” 하였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이제 돌아가다가 길을 잃을까봐 내가 나뭇잎 하나씩 떨어뜨리니 돌아갈 때 그것을 따라가라” 하였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그 아들을 미워하지 않고, 가다가 길을 잃을까봐 나뭇잎 하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인류를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아가페라고 하는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정신의 문이 열린 사랑, 충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랑, 오성이 깨고, 이성이 깨고, 영성이 깬 사랑입니다. 눈감은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충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에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세계에 깬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이라는 것이 자꾸 적어지겠지요. 지금 이란과 이라크가 충돌하는 것도 눈을 감았으니까 충돌하는 것이지, 호메이니한 사람이 눈을 떴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리로 오면 저리로 가서 충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눈이 지금 다 감겼으니까 자꾸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보다는 어른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어린애같이 그러지 말고 어른처럼 성숙해져야 합니다.

싸움을 자꾸 하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싸움하고 싶으면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건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김일성도 지금 어려서 그렇다.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렇다. 아, 지금 어느 때인데 싸웁니까. 원자탄 하나만 터지면 세계가 다 없어지고도 원자탄이 남는 때인데 어떻게 하자고 싸우자 그렇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았다는 것이고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사랑 장章’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지식의 장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랑은 역시 지식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알 때에 사랑할 수 있지, 모르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우리 좁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눈을 뜨고, 정신의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나라의 빛이 되고, 이 나라의 눈이 되고, 이 나라의 지성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의 앞길을 비춰주고, 이 나라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끝) 

- 이 글은 《믿음의 힘》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1919-2012)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향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